

맞벌이교사들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

최 정 혜*

경상대학교 가정교육과, 경상대학교 교육연구원 책임연구원*

Marital Satisfaction and Family Strengths in Dual-Income Teachers

Jung-Hae, Choi*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arital satisfaction and family strengths in dual-income teache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89 dual-income teachers in the Gyeongnam Area, Korea.

The major findings obtained from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degree of marital satisfaction of the dual-income teachers was 5.22 on a scale of 0-7.0. The significant variables were sex, the educational degree, religion, the type of family, housework-helper, self-esteem and job satisfaction in dual-income teachers.
- 2) The degree of family strengths of dual-income teachers was 3.88 on a scale 0-5.0. The significant variables were economic level, self-esteem, job satisfac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in dual-income teachers.
- 3) There was a close correlation between the marital satisfaction and family strengths in dual-income teachers.

주제어(Key Words) : 맞벌이교사(dual-income teachers),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가족건강성(family strengths), 관련변인(related variables)

I. 서 론

오늘날 산업화의 영향으로 많은 여성들이 직업세계에서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어 여성의 취업 증가는 물론 기혼여성의 취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는 맞벌이가족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고 이에 맞벌이가족은 우리사회에서 보편화되고 있다(김혜신, 김경신, 2003; 최정혜, 2005b).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전체 여성취업자 중 78%가 기혼여성으로 나타나(통계청, 2004) 앞으로도 맞벌이부부의 지속적인 증가를 예측할 수 있으며, 맞벌이가족의 문제는 이제 사회의 주요 이슈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런데 맞벌이가족은 직업과 가족생활을 양립해야 한다는 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우선 맞벌이 아내의 경제활동은 양면성을 지니, 자신의 자아실현은 물론 사회적인 차원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회가 오랫동안 여성에게 부여해 온 역할이 그대로 지속되므로 취업이내로 하여금 '직장인' 인 동시에 여전히 '주부' 역할을 겸하도록 기대하기 때문에, 취업주부는 역할 갈등, 시간갈등 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은 가정에도 영향을 준다(채로, 이기영, 2004). 취업주부는 비취업주부보다 가정생활만족도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다(전영자, 1997; 채로의 1인, 2004). 다음으로 맞벌이남편과 관련된 어려움으로는 최근 남편의 전통적 역할인 '부양자'역할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부모로서의 '양육자'역할과 남편으로서의 '배우자'역할이 점점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김소영, 옥선화, 2000). 맞벌이남편의 역할은 직업과 가족 두 영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여 상호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맞벌이남편들의 아버지 역할 수행정도는 실제로 매우 낮게 나타나(김태현, 김양호, 2003; 홍성례, 유영주, 2001; Barnett, Marshall, Peck, 1992; O'Neal & Greenberger, 1994) 가족역할수행의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다. 또 맞벌이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최정혜, 2005b) 맞벌이부부의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에 따른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현대가족의 성격이 부모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가족에서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핵가족 위주의 가족으로 변화함에 따라 가족이 안정적으로 강하게 지속되지 못하고 결

혼불안정성이 높아가고, 이에 따라 이혼이 급증하게 되었다. 따라서 가족의 안정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족의 근간을 이루는 부부를 중심으로 애정적인 결속을 강화시켜주는 결혼만족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김경신, 권오남, 1996; 조유리, 김경신, 2000; 최정혜, 2005b). 또 최근 들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가족건강성은 사회의 기초집단으로서 가족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결과로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경향이다(어은주, 유영주, 1997; 유계숙, 2004; 유영주, 2001, 2004; 최정혜, 2004, 2005a). 가족건강성 관련 선행연구에서 결혼만족이 높은 가족이 가족건강성 또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최정혜, 2004, 2005a) 가족건강성에 결혼만족여부가 중요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교사는 직업 중에서 여성들이 비교적 많이 진출해 있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며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미래의 가족구성원을 교육한다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맞벌이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으로 어려움이 많은 맞벌이부부 중에서도 교사를 중심으로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을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맞벌이교사들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의 실태는 물론 맞벌이 교사들의 건강한 가족생활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맞벌이 교사들의 결혼만족도는 어떠하며, 관련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맞벌이 교사들의 가족건강성 정도는 어떠하며, 관련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맞벌이 교사들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선행연구 고찰

1. 맞벌이교사들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변인

결혼만족도란 결혼생활 전반에 대하여 부부의 행복과 만족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이나 태도를 가늠하는 척도를 말하는 것으로 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부부관계의 여러 양상들 중 결혼관계에서의 다양한 현상들을 파악하기 위해 개념화한 결혼만족도의 연구는 결혼 및 가족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어온 주제이다(정현숙, 1997; 홍성례·유영주, 2001; Bowman, 1990).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은 초기에는 주로 사회인구학적인 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어왔으나, 점점 그 관련변인을 가족의 심리적 태도나 부부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변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는 경향이다(조유리·김경신, 2000). 본 연구에서 사용된 맞벌이 교사의 결혼만족도란 “맞벌이 교사 개인의 감정에 초점을 두고 결혼관계에 대한 개인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맞벌이교사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관련선행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주부를 대상으로 한 결혼만족도 연구를 관련연구로서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허영숙(1993)은 주말부부 여교사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연구에서 주말부부 여교사들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경향임을 보고하였으며, 최정혜(2005a)는 주말부부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각각 5.12점, 4.96점으로 높은 편이라 밝힌바 있다.

김은경(1999)은 주말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변인으로 직장생활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도와 주말부부에 대한 친구의 지지 등을 보고하였으며, 최정혜(2005a)는 주말부부 남편의 결혼만족도 변인은 자녀수,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 전략 사용정도이며 주말부부아내의 결혼만족도는 아내의 교육수준, 직업,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전략 사용정도임을 밝혔다. 국외연구로서는 주말 맞벌이부부의 배우자와의 만족도는 일반 부부에 비해 낮고, 남편이 아내보다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보고한바 있다(Bunker, Zubek, Vanderslice, Rice, 1992).

자아존중감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변인으로 밝혀진 바 있으며(조유리·김경신, 2000; 최정혜, 2005a) 직업만족도 또한 선행연구(최정혜, 2005b)에서 결혼만족의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바 있다. 직업만족도는 결혼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 활동에 만족하는 사람이 가정생활도 만족하는 정도가 높고, 직업 활동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가정생활역시 불만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경신·김오남, 1996; 홍성례·유영주, 2001; Galambos & Sibereisen, 1989).

2. 맞벌이교사의 가족건강성과 관련변인

최근 가족학연구에 있어서 가족을 건강가족적 관점(Family Strengths Perspective)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의 긍정적인 측면과 가족의 장점을 강화하고 가족관계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관점이다(유영주, 2004).

DeFrian(2003)은 건강가족을 가족 간의 상호작용의 질이 가족 개개인의 심리적 안녕에 기여하는 가족이라 하였으며, 유계숙(2004)은 가족관계에 대한 성원들의 만족도가 높고,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가족이라 보았다. 유영주(2004)는 가족원 개개인의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이 원만하여 집단으로서의 가족체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개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맞벌이교사의 가족건강성이란 “맞벌이교사 개개인의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이 원만하여 집단으로서의 가족체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현재 맞벌이교사를 대상으로 한 가족건강성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가족건강성 연구 고찰을 통해 관련변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건강한 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잘 견뎌내며(유영주, 2001; Brigman, Schons, & Stinnett, 1986), 종교가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었다(어은주, 유영주, 1997; Stinnett & Sauer, 1979). 홍성례와 유영주(2001)는 남편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어은주와 유영주(1997)는 도시주부의 가족건강성이 높고, 가족건강성의 유의한 변인으로 결혼만족도, 가족의 정신적 건강, 남편의 직업, 부인의 직업, 결혼지속년수 등을 보고하였다. 자아존중감은 몇몇 선행연구에서 가족건강성과 정적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어은주, 유영주, 1997; 유영주, 2001; 최정혜, 2004) 맞벌이교사의 가족건강성에도 관련변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직업만족도 역시 생활만족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직업 활동에 만족하는 사람이 가정생활도 만족하는 정도가 높고, 직업 활동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가정생활역시 불만족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김경신, 김오남, 1996; 홍성례, 유영주, 2001; Galambos & Sibereisen, 1989).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맞벌이교사의 결혼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89)

구 분	N(%)	구 분	N(%)
성별 남교사 여교사	107(37.0)	교육 전문대 졸업	17(5.9)
	182(63.0)	수준 대학 졸업	195(67.5)
연령 35세 미만 35-40세 미만 40세-45세 미만 45세-50세 미만 50세 이상	55(19.0)	대학원 졸업	77(26.6)
	68(23.5)	만미 7세이하	55(19.0)
	112(38.8)	연령 초등생	112(38.8)
	35(12.1)	중학생	48(16.6)
	19(6.6)	고등학생	28(9.7)
종교 없음 유무 있음	132(45.7)	대학생 이상	46(15.9)
	157(54.3)	가족 확대가족	49(17.0)
자녀수 1명 2명 3명 이상	49(17.0)	형태 핵가족	240(83.0)
	213(73.7)	월수입 300만원 미만	79(27.3)
	27(9.3)	정도 300-400만원 미만	79(27.3)
		400-500만원 미만	83(28.7)
가사일 없다 도움유무 있다	205(70.9)	500만원 이상	48(16.6)
	84(29.1)	확대가족 남편부모와 동거	35(12.1)
돕는 고용인 사람 남편부모 아내부모	32(11.1)	유형 아내부모와 동거	14(4.8)
	27(9.3)	5년 미만	20(6.9)
	25(8.7)	결혼 5년-10년 미만	54(18.7)
	지속 10년-15년 미만	112(38.8)	
	년수 15년-20년 미만	60(20.8)	
	20년 이상	43(14.9)	

단축도와 가족건강성의 관련변인으로 맞벌이교사의 연령, 교육수준, 종교, 자녀수, 가정의 월수입 정도, 결혼지속년수, 자아존중감, 직업만족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경남지역의 맞벌이부부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교사이다. 예비조사는 2005년 7월 4일부터 7월 15일까지 맞벌이 교사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한 후 수정된 질문지로 본 조사는 2005년 8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경남지역 J시의 9개 어린이집 원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유의표집 하였고, 총 600명에게 배포하여, 회수된 질문지 중에서 맞벌이 부부이면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교사인 298명을 최종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을 보면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연령은 40세-45세 사이가 가장 많고 종교가 있는 교사가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2명이 대부분이며, 가사일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전체의 약 30%정도였고, 가사조력자는 고용인이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높은 편으로 대학원 졸업 이상이 전체의 1/4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 졸업이 조금 있는 것은 유치원 교사가 포함된 결과로 생각된다. 가족형태는 대부분 핵가족형태였으며, 월수입정도는 400만원이상-500만원미만이 가장 많이 나타나 경제상태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확대가족 형태(17%) 중에서는 남편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지속년수는 10년-15년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로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인 배경을 알아보는 일반문항과 결혼만족도 척도, 가족건강성 척도, 자아존중감척도, 직업만족도 척도 등을 사용하였다.

결혼만족도 척도는 슈(Schumm)과 그의 동료들이 제작한 KMSS척도를 연구에 적용한 최정혜(2005a)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결혼, 배우자로서 남편,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묻는 3문항으로 '매우 불만족'에서 '매우 만족'까지 7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신뢰도 Cronbach' α =.95였다. 가족건강성 척도는 어은주와 유영주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최정혜(2004)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건강성 척도는 하위요인으로 가족원간의 유대, 문제해결능력, 대화기술,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 등의 4개 영역, 총 20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결코 그렇지 않다'에 1점에서 '항상 그렇다'에 5점까지 점수를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 =.94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Rogenberg와 Krause & Tran의 척도를 토대로 문항을 수정하여 만든 최정혜의 척도(2004)를 사용하였다. 총 4문항을 본 조사에 사용하였으며,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에서 '정말 그렇다'에 5점을 주는 리커트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전체 4문항 중에서 2문항은 긍정적인 문항, 2문항은 부정적인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통계처리 시 역산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 =.78이었다. 직업만족도 척도는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자가 직접 만들었으며, 직업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묻는 3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 =.86이다.

3.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WIN 10.0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신뢰도 분석, 평균, 독립표본 t검정, 일원변량

분석, Schffe test, 상관관계 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연구문제 규명을 위해 결혼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직업만족도를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나누었는데 그 기준은 평균값으로 하였다. 즉 결혼만족도 평균값 5.2168, 자아존중감 평균값 3.703, 직업만족도 평균값 3.9389점을 기준으로 평균값보다 점수가 낮으면 낮은 집단, 평균값보다 점수가 높으면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처리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맞벌이교사들의 결혼만족도 및 관련변인

<연구문제 1>을 규명하기 위해서 먼저 맞벌이교사들의 결혼만족도 정도를 백분율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에서와 같이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정도는 '만족'이 가장 높고(45.0%), 다음이 '보통'으로(22.8%) 나타나서, 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를 합하면 전체 응답자의 67.5%가 '결혼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결혼생활만족도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또 '배우자에 대한 만족' 정도는 '만족'이 가장 높고(46.0%), 다음으로 '조금 만족'(17.7%)이 나타나서, 전체의 73.7%가 '배우자에 대한 만족'을 보였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정도는 '만족'이 가장 높고(48.8%), 다음으로 '보통'이 나타나(19.0%),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정도는 전체 73%로서 높게 나타났다. 본 결과는 맞벌이교사들이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보다는 '배우자나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경향임을 보였다.

다음으로 맞벌이교사들의 결혼만족도를 평균으로 비교해본 결과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맞벌이교사들의 결혼만족도는 7점 만점에 평균 5.22점으로 나타나 중간점인 4점을 훨씬 넘어서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결과는 결혼만족도 점수가 중간점수보다 높게 나타난 관련 선행연구(김은경, 1999; 최정혜, 2005a)와 일치하는 경향이며, 주말부부보다는 결혼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교사들의 결혼만족도를 하위영역별로 보았을 때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부부관계가 좋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게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는 같은 측정도구로 주말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살펴본 최정혜(2005a)의 연구 결과보다 전체 결혼만족도가

<표 2> 맞벌이교사들의 결혼만족도

(N=289)

변인		N	%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매우 불만	0	0
	불만	13	4.5
	조금 불만	15	5.2
	보통	66	22.8
	조금 만족	45	15.6
	만족	130	45.0
	매우 만족	20	6.9
배우자에 대한 만족	매우 불만	0	0
	불만	15	5.2
	조금 불만	14	4.8
	보통	47	16.3
	조금 만족	51	17.7
	만족	133	46.0
	매우 만족	29	10.0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매우 불만	0	0
	불만	12	4.2
	조금 불만	11	3.8
	보통	55	19.0
	조금 만족	43	14.9
	만족	141	48.8
	매우 만족	27	9.3

조금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 대상자가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특수 집단이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한 결과로 더 높게 나타났는지 아니면 맞벌이 주말부부에 비해 맞벌이동거부부라는 특성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후속연구가 계속되어 연구결과들이 축적되어야 경향성을 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3> 맞벌이교사들의 결혼만족도 평균

(N=289)

구분	M	SD
총체적 결혼만족도	5.22	1.19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5.12	1.25
배우자에 대한 만족	5.25	1.28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5.28	1.23

맞벌이교사들의 결혼만족도에 관련된 변인은 다음 <표 4>와 같다. 맞벌이교사들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관련변인은 성별(p<.01), 교육수준(p<.01), 종교유무(p<.01), 가족형태(p<.05), 가사조력자(p<.05), 자아존중감(p<.05), 직업만족도(p<.01) 등으로 나타났다. 즉 맞벌이교사들의 결혼만족도

는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관련 선행연구(최정혜, 2005a)에서 남편이 아내보다 결혼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경향이며, 가족생활에서 남편이 아내로부터 돌봄을 받는 경향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맞벌이교사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교육수준이 변인으로 나타난 최정혜(2005a)의 연구와는 일치하는 경향이나 김은경(1999)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맞벌이교사들이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결혼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핵가족 형태가 확대가족 형태 보다 결혼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 가사조력자가 고용인이거나 아내 쪽 부모일 경우가 남편 쪽 부모일 때 보다 결혼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교사들이 나이든 부모에게 패를 끼치는 것보다 고용인을 쓸 때 더 편안하게 느끼는 것으로, 시댁보다는 친정 쪽 부모가 도와주는 것을 선호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맞벌이교사들의 자아존중감과 직업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결혼만족도에 관련변인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조유리, 김경신, 2000; 최정혜, 2005a)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표 4> 맞벌이교사들의 관련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

(N=289)

변인	N	M	F(t)	Sheffe
성별 남교사	107	5.47	2.84 **	
여교사	182	5.06		
연령 35세미만	55	5.36	.51	
35-40세미만	68	5.11		
40-45세미만	112	5.16		
45세-50세미만	35	5.34		
50세이상	19	5.28		
교육 전문대졸업	17	4.80	4.65 **	A
수준 대학졸업	195	5.12		B
대학원졸업	77	5.55		B
종교 없음	132	5.02	-2.56 **	
유무 있음	157	5.38		
자녀수 1명	49	5.47	.39	
2명	213	4.90		
3명	27	5.55		
가정 월수입 300만원미만	79	5.05	1.29	
300-400만원미만	79	5.20		
정도 400-500만원미만	83	5.23		
500만원이상	48	5.48		
가족 형태 확대가족	49	4.86	-2.33 *	
핵가족	240	5.29		
가사일 없다	205	5.20	-4.1	
조력자 유무 있다	84	5.26		
돕는 사람 고용인	32	5.71	3.18 *	B
남편부모	27	4.76		A
아내부모	25	5.23		B
결혼 지속 5년미만	20	5.15	.54	
5-10년미만	54	5.30		
년수 10-15년미만	112	5.11		
15-20년미만	60	5.38		
20년이상	43	5.18		
자아 존중감 낮은 집단	159	5.08	-2.17 *	
높은 집단	130	5.38		
직업 만족도 낮은 집단	98	4.94	-2.80 **	
높은 집단	191	5.36		

* p<.05, **p<.01.

2. 맞벌이교사들의 가족건강성 및 관련 변인

<연구문제 2>를 규명하기 위하여 맞벌이교사들의 가족건강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맞벌이교사들의 가족건강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88점으로 나타나 가족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유사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어은주와 유영주(1997)의 도시주부의 가족건강성 3.88점과 같은 경향이며, 홍성례와 유영주(2001)의 남

편의 가족건강성 3.83과 최정혜(2004)의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 3.76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대상자가 교사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맞벌이부부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 비해 가족건강성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맞벌이교사들의 가족건강성을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족원간의 유대'가 4.0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족문제해결 수행능력' 3.93,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3.87, '가족원간

의 가치체계 공유' 3.70으로 나타났다. 즉 맞벌이 기혼교사들의 가족건강성 하위영역은 '가족원간의 유대'가 가장 높고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선행연구(어은주의 1인, 1997; 최정혜, 2004; 홍성례의 1인, 2001)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나 본 연구가 위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가족건강성 하위영역의 점수가 전체로 다 조금씩 더 높다는 점이다. 특히 맞벌이교사들의 '가족원간의 유대'가 아주 높게 나타나 교사집단이 가족 간의 결속이 매우 강함을 보여주었다.

<표 5> 맞벌이교사들의 가족건강성 (N=289)

구분	M	SD
총체적 가족건강성	3.88	.46
가족원간의 유대	4.01	.48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3.87	.52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3.70	.56
가족문제해결 수행능력	3.93	.46

한편 맞벌이교사들의 가족건강성에 유의한 관련변인들은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정의 월수입정도(p<.05), 자아존중감(p<.001), 직업만족도(p<.001), 결혼만족도(p<.001) 등으로 나타났다. 즉 맞벌이교사들의 가족건강성은 가정의 월수입 정도가 많을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혜영과 오윤자(200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또 맞벌이교사들의 가족건강성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자아존중감이 '가족건강성'에 유의한 변인임을 보고한 선행연구들(어은주의 1인, 1997; 최정혜, 2004)과 일치하는 경향이다. 또 맞벌이교사들의 가족건강성은 직업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나 직업만족도에 따라 가족건강성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맞벌이교사들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가족건강성이 더 높게 나타나 결혼만족도 변인이 가족건강성에 유의한 관련변인임을 보여주었다. 본 결과는 최정혜(2004, 2005a)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표 6> 맞벌이교사들의 관련변인에 따른 가족건강성

(N=289)

변인	N	M	F(t)	Sheffe
성별 남교사	107	3.94		
여교사	182	3.84	1.83	
연령 35세미만	55	3.90		
35-40세미만	68	3.89		
40-45세미만	112	3.82	1.00	
45세-50세미만	35	3.93		
50세이상	19	4.00		
교육 전문대졸업	17	3.86		
수준 대학졸업	195	3.84	2.02	
대학원졸업	77	3.97		
종교 없음	132	3.83		
유무 있음	157	3.91	-1.49	
자녀수 1명	49	3.91		
2명	213	3.88	.28	
3명	27	3.82		
가정 월수입 정도 300만원미만	79	3.81		A
300-400만원미만	79	3.81	2.98 *	A
400-500만원미만	83	3.93		A
500만원이상	48	4.01		A
가족 형태 확대가족	49	3.84		
핵가족	240	3.88	-6.5	
가사일 없다	205	3.90		
조력자 유무 있다	84	3.83	1.22	
돕는 사람 고용인	32	3.89		
남편부모	27	3.76	1.17	
아내부모	25	3.77		
결혼 지속 5년미만	20	3.91		
5-10년미만	54	3.90		
연수 10-15년미만	112	3.80	1.52	
15-20년미만	60	3.89		
20년이상	43	3.99		
자아 존중감 낮은 집단	159	3.73		
높은 집단	130	4.06	-6.58 ***	
직업 만족도 낮은 집단	98	3.68		
높은 집단	191	3.98	5.32 ***	
결혼 만족도 낮은 집단	118	3.62		
높은 집단	171	4.05	-8.81 ***	

* p<.05, *** p<.001

3. 맞벌이교사들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과의 관계

<연구문제 3>을 규명하기 위하여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상관관계 분석에 앞서 명목변인은 dummy처리 하였는데, 종교는 없으면 0, 있으면 1로, 가족형태는 확대가족은 0, 핵가족은

<표 7> 맞벌이교사들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의 상관관계

(N=28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00												
2	-.17**	1.00											
3	-.43**	.10	1.00										
4	.16**	.11	-.10	1.00									
5	-.02	.42**	.07	.01	1.00								
6	-.01	.30**	.19**	.02	.17**	1.00							
7	-.02	-.06	-.03	-.06	-.09	.08	1.00						
8	.07	-.04	.07	-.01	-.01	.04	-.46**	1.00					
9	-.07	.83**	.08	.12*	.45	.26	-.05	-.05	1.00				
10	-.07*	-.06	.02**	-.02	-.11	.19**	-.08	.01	-.06	1.00			
11	.06	-.02	.10	.06	-.03	.15**	-.02	-.03	.00	.44**	1.00		
12	-.17**	-.01	.18**	.15*	-.05	.11	.14*	.02	.01	.12*	.24**	1.00	
13	-.11	.02	.10	.09	-.04	.16**	.04	-.07	.06	.38**	.44**	.55**	1.00

1: 성별 2: 연령 3: 교육수준 4: 종교 5: 자녀수 6: 월수입정도 7: 가족형태 8: 가사도움 유무 9: 결혼지속년수 10: 자아존중감 11: 직업만족도 12: 결혼만족도 13: 가족건강성

1로, 가사도움은 ‘없다’는 0, ‘있다’는 1로 dummy변수로 만들어 분석하였다.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맞벌이교사들의 결혼만족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변인은 가족건강성으로 나타났다($r=.55$). 즉 맞벌이교사들의 결혼만족도는 가족건강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교사들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오늘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맞벌이부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맞벌이부부의 가족건강성을 규명하려는 연구의 일환으로 맞벌이부부 중에서도 교사를 대상으로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교사들의 결혼만족도는 7점 만점에 평균 5.22점으로서 결혼만족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맞벌이 기혼교사들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관련변인은 성별, 교육수준, 종교 유무, 가족형태, 가사조력자, 자아존중감, 직업만족도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맞벌이교사들의 결혼만족도가 중간점수보다 높게 나타나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게 생각되지만 맞벌이부부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할 때 결혼만족도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맞벌이부부는 직장가정생활을 양립해야하는 상황 때문에 가사분담을 비롯한 모든 가족생활과 관련된 역할에 있어 시간에 쫓기고 업무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 특히 맞벌이아내가 가사 관련 역할부담을 혼자 도맡아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결혼만족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결혼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맞벌이부부 연구에서 부부갈등을 언급한 것과도 연계되므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맞벌이교사의 결혼만족도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맞벌이교사들의 가족건강성은 5점 만점에 3.88점으로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맞벌이 교사들의 가족건강성에 유의한 관련변인은 가정의 월수입정도, 자아

존중감, 직업만족도, 결혼만족도 등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에서 맞벌이교사들의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맞벌이교사들이 직장과 가족생활을 잘 양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고무적이라 생각된다. 이는 맞벌이부부는 일반적으로 외벌이부부에 비해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쫓기기 때문에 가족생활이 조금 불안정할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수정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맞벌이교사의 가족건강성 역시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가족구성원의 전인적인 인간성은 가족의 정서적·관계적 기능을 통하여 발달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건강성은 매우 중요한데 맞벌이부부인 경우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이 제한적이므로 부부간 결속의 결과로 나타나는 가족건강성이 더 강화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교사는 학생들에게 삶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셋째, 맞벌이교사들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맞벌이교사들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도 높아져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 간의 불가분의 관계를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본 연구는 맞벌이교사들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를 두며, 후속연구로는 가족생활 규명에 중요한 부분인면서 본 연구에서 살펴보지 못한 맞벌이교사들의 가족스트레스를 규명해 볼 것을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경남지역의 맞벌이교사라는 제한점을 가지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단위의 맞벌이 교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일반화 시킬 수 있는 맞벌이교사들의 특성을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김경신, 권오남(1996). 맞벌이 부부의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18.
 김소영, 옥선화(2000). 기혼 남성의 아버지역할과 직업역할 몰입 유형화와 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125-137.
 김은경(1999). 맞벌이 주말부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25-43.

김태현, 김양호(2003). 중년남성의 남성의식, 직장생활 및 가족생활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1), 99-120.
 김혜신, 김정신(2003). 맞벌이부부의 부모역할갈등과 심리적 복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4), 117-131.
 어은주, 유영주(1997). 도시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변인 연구 -자녀교육기 가족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69-285.
 유계숙(2004). 건강가족요소에 관한 연구-가족체계와 건강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25-42.
 유영주(2001). **건강가족연구**. 서울: 교문사.
 _____(2004). 건강가족 확산을 위한 실천적 과제. **한국가족관계학회 추계학술대회**, 3-11.
 전영자 (1997). 전문직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심리적결과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339-355.
 정현숙(1997). 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교합을 통한 새로운 연구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1), 191-204.
 정혜영, 오윤자(2005). 기혼 여교사의 가족건강성과 교사효능감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6), 25-37.
 조유리, 김정신(2000). 부부의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광주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2), 1-21.
 채로, 이기영(2004).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265-281.
 최정혜(2004).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및 가족건강성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2), 69-83.
 최정혜(2005a). 주말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 **대한가정학회지**, 43(3), 11-26.
 최정혜(2005b).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및 직업만족도-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3(10), 55-68.
 통계청(2004). <http://www.nso.go.kr>
 허영숙(1993). 주말에 남편을 만나는 맞벌이 여교사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성례, 유영주(2001). 남편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건강가족연구**, 서울: 교문사, 423-461.
 Barnett, R. C. Marshall, Nancy L. and Peck, J. H.(1992). Men's multiple roles and their relationship to men's

-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May), 358-367.
- Barnett, R. C.(1994). Home-to-work spillover revisited: A study of full time employed women in dual-earner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647-656.
- Beutell, N. J. & Greenhaus, J. H.(1983). Integration of home and non-home roles: Women's coping and conflict behavio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 43-48.
- Bowman, Marilyn. L. (1990). Coping efforts and marital satisfaction, measuring marital coping and its correlat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2(2), 463-474.
- Brigman, K. M. L., Schons, J., & Stinnett, N.(1986). Strengthens of families in a society under stress: A study of strong families in Iraq. *Family Perspective*, 20, 61-73.
- Bunker, B. B., Zubek, J. M., Vanderslice, V. J., & Rice, R. W.(1992). Quality of life in dual-career families: Commuting versus single-residence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399-407.
- Galambos, N. L. & Sibereisen, R. K.(1989). Role strain in West German dual-career househol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2), 323-330.
- Olson D.H. & DeFriar J.(2003). *Marriage and families: Intimacy, diversity and strengths*, McGraw Hill Co.
- O'Neal, R. & Greenberger, E.(1994). Patterns of commitment to work and parenting: Implications for role strai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101-118.
- Stinnett, N., & Sauer, K. H.(1979).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of strong families. *Family Perspectives*, 11, 3-11.

〈국문요약〉

이 연구는 맞벌이교사들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경남지역의 맞벌이교사 289명이며,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맞벌이교사들의 결혼만족도는 7점 만점에 평균 5.22점으로 결혼만족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맞벌이 기혼교사들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관련변인은 성별, 교육수준, 종교 유무, 가족형태, 가사조력자, 자아존중감, 직업만족도 등으로 나타났다.
2. 맞벌이교사들의 가족건강성은 5점 만점에 3.88점으로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맞벌이 교사들의 가족건강성에 유의한 관련변인은 가정의 월수입정도, 자아존중감, 직업만족도, 결혼만족도 등으로 나타났다.
3. 맞벌이교사들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맞벌이교사들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도 높아져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 간의 불가분의 관계를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맞벌이교사들의 결혼만족도는 양호하며 가족건강성도 높아서 직장과 가정생활을 잘 양립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가족건강성이 좀 더 강화되어 학생들에게 더 나은 삶의 본보기가 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논문접수일자: 2006년 6월 22일, 논문심사일자: 2006년 7월 4일, 게재확정일자: 2006년 9월 18일